

# 짜깁기와 글쓰기

유영갑  
소설가

그가 벽에 붙은 커피혼합기 스위치에 손을 대자 뜨거운 커피가 정확히 한 잔 흘러나왔다. 아침 커피는 언제나 정신을 투명하게 한다. 그는 커피로 입술을 축이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21세기가 되고 17년이 지났어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한강이 은박지처럼 반짝여 눈이 부시다. 오늘따라 수면에 떠 있는 철새떼가 정겹다.

뭇조 먹어야겠군.

스물여덟 살인 그는 새 작품을 쓰느라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곤 했다. 새벽에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으레 속이 쓰리다. 주방으로 가서 빵가마의 버튼을 눌렀다. 그러나 빵가마 문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밀가루가 떨어졌다는 표시이다. 창백한 그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다. 차라리 잘된 일이다. 그는 오랫동안 드라이브도 할 겸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했다. 점퍼를 걸치고 물건 값을 결제할 수 있는 스마일 카드를 챙겼다.

얼마 전에 구입한 밤색 네쌍스가 아파트 광장에 표범처럼 낯짝 얹으려 있었다. 시동을 걸자 질주하고픈 본능을 억제하듯 엔진이 가르릉거리는 소리를 냈다. 네쌍스는 운전대와 가속 페달이 자동 조절되어 운전하기가 편하다.

그동안 쓴 연애소설들은 PC통신에서 인기가 좋았다. 글을 올릴 때마다 조회 횟수가 20만이 넘었다. 통신상에서의 조회 횟수는 바로 인기를 나타내는 수치가 된다. 문단 데뷔 수단이었던 신춘문예와 신인상 제도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다. 사람들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평론가나 출판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발표할 수가 있다. PC통신의 전자출판사에 소설을 올리고 인세를 받았다. 무엇보다 제목이 중요했다. 첫눈에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작품은 그대로 실패작이 되고 만다. 그는 통신에서 문학동호회 모임을 자주 기웃거렸다. 그곳에 올려진 시를 읽다 보면 그럴듯한 제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 이 땅에서는 3S(섹스, 스포츠, 스크린)산업이 불길처럼 일어난 적이 있다. 그때 일부 젊은 창작자들 중에서는 사회의 거품 분위기에 편승하여 순수한 창작물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혼성모방이라는 장르를 만들었다. 혼성모방은 사진작가와 화가, 조각가들도 부단히 시도를 했다. 어설픈 평론가들이 혼성모방하는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며 미숙한 작가들을 부추겼다. 하지만 그 생명이 길지는 못했다. 그런데 글쓰기와 발표하기가 손쉬워진 탓일까. 이 시대에도 혼성모방을 흥

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남의 작품을 도용할 때는 교묘하게 짜깁기를 하는 기교가 필요했다. A 작품의 도입부와 B 작품의 중반 부분을 그리고 C 작품에서 결말부분을 따와서 혼합시키면 감쪽같이 한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는 주로 인터넷에서 짜깁기 할 자료들을 뽑아 왔다. 외국 작품이어서 독자들이 잘 몰랐고 시비에 휘말릴 확률도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자신이 표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몇 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소설을 누군가가 컴퓨터에 침입해서 빼내간 후 먼저 발표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짜깁기한 글이어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한동안 속을 끓이며 지내던 그는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고 표절은 영혼을 흠치는 파렴치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파트를 빠져나간 네쌍스가 21세기대로를 시속 200km의 속도로 내달렸다. 88올림픽도로 위에 고가(高架)로 놓여진 21세기대로는 속도 제한이 없다. 네쌍스는 단숨에 서울을 벗어나 김포시 끝에 도달했다. 그는 식사를 끝내고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는 진정한 작가가 되기를 원했다. 단 한 문장도 표절하지 않은 순수한 창작물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작한 새 작품은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문장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그럴 때면 오늘 처럼 네쌍스를 몰고 나가 21세기대로를 미친듯이 내달리

다가 돌아오곤 했다. 피가 마르고 뼈가 깎이우는 듯한 고통스런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갔다.

계절은 소리없이 바뀌어 어느새 봄과 여름이 지나갔다. 그는 늦가을 어느 날 비로소 작업을 끝냈다.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었던가. 작품을 마무리하던 날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잠에 빠져 들었다. 이튿날 아침 그가 평온한 얼굴로 침대에서 내려왔다. 버릇처럼 커피잔을 들고 서재로 가서 컴퓨터를 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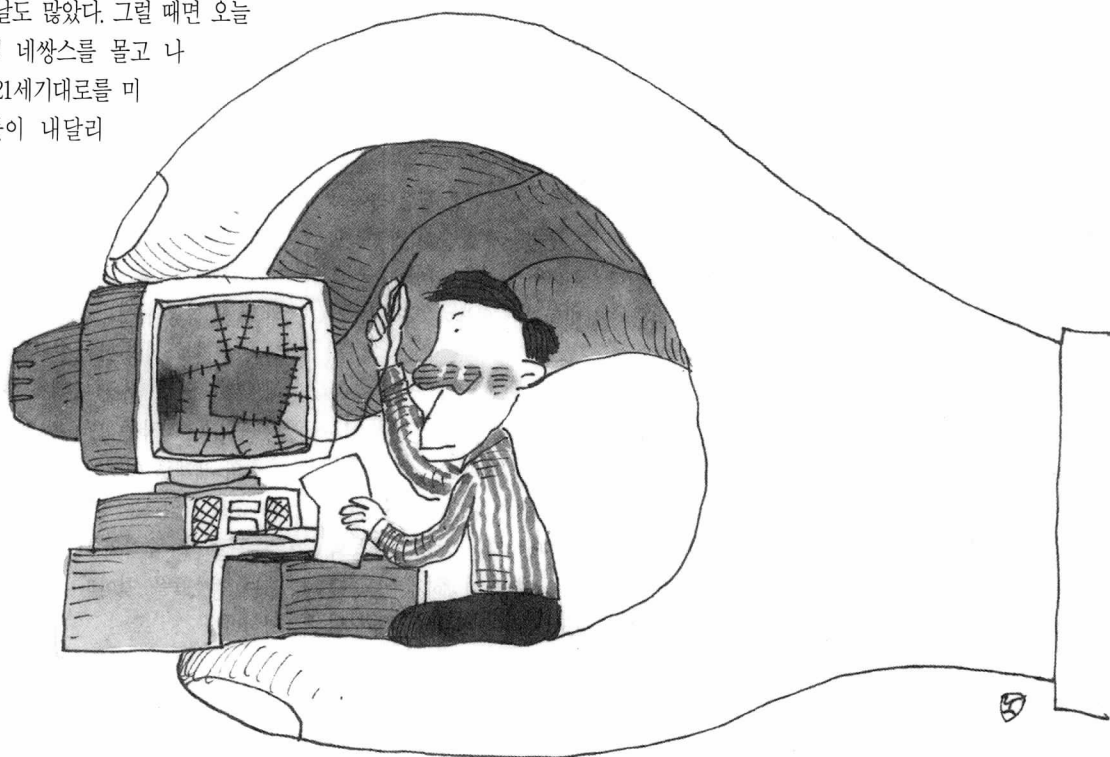
미안하이!

처음 보는 아이디어가 메모를 보내 왔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서둘러 전자출판사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화면에 나타난 글자는 모두 깨져 있었다.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 누군가가 글을 훔치고 나서 파일을 파괴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었다. 그는 물끄러미 화면을 건넌다보았다. 커피잔 철 힘도 없을 만큼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인과응보인가. 그가 중얼거렸다.

얼마 후 그는 주차장으로 갔다. 네쌍스에 앉아 시동 거는 모습은 초탈한 구도자처럼 티 없이 맑아 보였다. 자동차가 서서히 아파트를 빠져 나갔다. 드라이브를 끝내고 돌아오면 아마 다시 컴퓨터 앞에 앉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끝냈을 때 느꼈던 그 성취감을 알기 때문이다. ◆

**“미안하이!  
처음 보는 아이디어가  
메모를 보내왔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서둘러  
전자출판사로 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일러스트레이션/노희성